

첫 여성·아프리카 IOC 위원장 선출

코번트리, 과반 확보... 유럽 중심 IOC 벽 넘어

2036 전북 하계올림픽 유치에 큰 영향 미칠 듯

지난 20일(현지시간), 그리스 코스타 나바리노에서 열린 제144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커스티 코번트리(Kirsty Coventry)가 새로운 IOC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당초에는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었으나 1차 투표에서 커스티 코번트리가 가볍게 승점을 잡았다.

총 97명이 투표한 상태에서 경합 후보였던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주니어 2표, 서베스찬 코 8표, 다비드 라 파르티앙 4표, 아타나베 모리나리 4표, 요한 엘리아쉬 2표, 파이잘 알 후세인 2표를 얻었는데 그친 반면 커스티 코번트리는 49표를 얻어 과반수에 도달한 것이었다.

이번 선거는 IOC 역사상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되었는데, 코번트리는 IOC 130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위원장이자 첫 아프리카 출신 위원장으로, 1차 투표에서 과반수(49표)를 확보하며 승리를 확정지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임기는 8년이며, 한 차례 4년 연장이 가능한 것을 고려하면 총 12년간 IOC 수장으로 활동할 수 있다.

커스티 코번트리 IOC 위원장 당선자는 아프리카 짐바브웨 1983년 9월 16일 출생으로 이제 41세를 갓 넘긴 젊은 백인 여성이다.

그녀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배영 200m 금메달

을 차지하며 세계적인 수영 선수로 이름을 알렸다. 올림픽 선수로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총 7개의 올림픽 메달(금 2, 은 4, 동 1개)을 획득하며 '아프리카의 황금 인어'라는 별명을 얻었고, 이후 국제 스포츠 행정가로서도 탄탄한 경력을 쌓아왔다.

그녀는 2012년 런던올림픽 기간에 IOC 선수위원으로 당선돼 활동했고 활동기간 동안 선수위원장도 맡았다.

2023년에는 IOC 집행위원회에 올라 올림픽 운영과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하며 차분히 한계단 한계단 경력을 쌓아 세계 체육계 최고의 수장인 IOC 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올랐다.

또한 짐바브웨 체육부 장관을 역임하며 자국 스포츠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특히 젊은 여성 선수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며, 스포츠를 통한 사회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커스티 코번트리는 당선 직후 연설에서 "올림픽이 전 세계의 화합과 포용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어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젠더 평등을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IOC가 추진해 온 개혁 추진 과제와도 맞닿아 있어 주목된다.

IOC 위원장직은 올림픽 개최지 선정, 조직 운영, 국제 스포츠 단체와의 협력 등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이다.



지난 20일(현지시간) 그리스 코스타 나바리노에서 열린 제144차 총회에서 제10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으로 선출된 커스티 코번트리가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36 하계 올림픽 유치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가장 비중이 큰 인사이기에 그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커스티 코번트리 위원장 당선자는 특히 선수 중심 정책 강화, 올림픽 개최 비용 절감, 환경 친화적 대회 운영, 젠더 평등 확대 등을 핵심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북이 2036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고자 하는 10여 개국을 따돌리고 유치권을 얻기 위해서는 머리를 싸매고 이 점에 포인트를 맞춰 대회 개최 준비를 해야만 한다.

IOC 내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전통적으로 유럽 중심으로 운영

되던 IOC에서 아프리카 출신의 여성 위원장이 선출된 것은, 조직이 보다 글로벌하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스포츠 외교와 국제 스포츠 기구의 운영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2032년 브리즈번 올림픽을 비롯해 개최가 유력한 2036년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커스티 코번트리 위원장의 리더십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녀가 IOC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주대학교 레슬링부가 제43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2년 연속 정상 of 자리를 지켰다.

대학 레슬링 최강 '재입증'

전주대 레슬링부, 회장기 전국대회 종합우승... 2년 연속

선수 12명 출전해 금메달 4 · 은메달 1 · 동메달 1개 획득

전주대학교 레슬링부가 제43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2년 연속 정상의 자리를 지켰다.

이번 대회는 지난 18~20일 3일간 철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이에 전주대 레슬링부는 12명의 학생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대회 최강임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21일 전주대에 따르면 이번 대회 입상자는 그레고로만형에 출전한 55kg 진영준(운동처방학과 2년), 63kg 최민위(정보통신학과 1년), 67kg 손태양(운동처방학과 4년), 72kg 송진우(신소재 화학공학 1년) 학생 선수가 1위를, 72kg 오민서(운동처방학과 4년) 학생이 2위를, 97kg 윤동현(운동처방학과 4년) 학생이 3위를 각각 차지했다. 특히, 67kg급에 출전한 손태양(운동처방학과 4년) 선수가 압도적인 기

량을 선보이며 대회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했다.

손태양 학생은 "이번 우승을 시작으로 올해 모든 대회에서의 우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종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지도해준 김운호 감독님과 류한수 코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올해 레슬링부 코치로 부임한 류한수 코치는 "지도자로서의 첫 무대를 종합 우승으로 마무리해 더욱 뜻깊다"며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며 첫 대회에서 우수지도자상까지 수상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주대가 전국 최강의 자리를 유지하며, 미래의 레슬링 수퍼스타들을 배출하는 명문 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코번트리 IOC 위원장 당선 축하... 다양성 중시하는 인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커스티 코번트리(짐바브웨)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제10대 위원장으로 당선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유 회장은 지난 21일 “코번트리 위원장의 당선은 진심으로 축하한다. IOC 역사상 첫 여성 위원장이자 젊은 리더로서 새로운 스포츠 시대를 열게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번트리 위원장 당선인은 누구보다 선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공정하고 포용적인 스포츠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문화를 만들어 온 리더”라며 “앞으로도 IOC가 세계 스포츠 발전을 이끌어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IOC 위원장에 여성이 당선된 것은 코번트리가 최초다.

수영 선수 출신인 코번트리 당선인은 올림픽에서 7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후 2016년 현역 은퇴를 선언한 뒤로는 체육 행정가로 활동했다.

2012년 IOC 선수위원에 당선돼 체육 행정에 발을 들인 코번트리는 2023년부터 IOC 집행위원으로 일했고, 2032년 브리즈번 하계올림픽 조정위원회도 이끌었다.

체육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여성 사무총장을 발탁한 유 회장은 “여성이 IOC 위원장에 당선된 것은 고정 관념이 깨진 것”이라며 “체육회도 이번에 여성 인사를 많이 배출했다. 비슷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 같고 고무적이다. 앞으로도 다양성을 추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체육회에서 양성 평등의 실현, 선수 중심의 정책 강화, 젊은 체육 리더 발굴과 육성에 매진할 것이다. 앞으로 IOC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 회장은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다. 강단이 있고, 리더십도 좋다. 아프리카 대륙 출신이다보니 다양성을 중시한다”며 “오랜 기간 친분을 쌓으며 소통해왔다.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조해 국제 스포츠계의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북체육회, 스포츠인권향상사업 추진

체육 현장 발생 인권침해 예방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가 건전하고 명량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한다.

전북체육회는 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가혹행위, 폭언, (성)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포츠인권향상사업을 펼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전북체육회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소속된 인권 전문 강사를 위촉해 찾아가는 인권 교육에 나선다.

대상은 도내 학교 운동부와 대학, 실업팀 선수 및 지도자 등이다. 연중 인권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교육이 끝난 뒤에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만족도 조사 등도 실시된다. /뉴시스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